



광주 영락공원 '하늘나라에 쓴 편지'

"마누라! 나 오늘 술 한잔했소 당신 너무 보고싶고 쓸쓸하오"

"이 세상 남편들, 아내가 아파 누워있을 때 그때가 행복합니다... 여보 마누라! 나 오늘 술 한잔했소. 공무원 생활 25년 만에 과장으로 진급했는데 축하해 주는 마누라도 없어 더 서운하고 허전하네... 저승에서는 좋은 남편 만나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잘 지내시구려..."

"천상에도 사계절이 있을까?... 살아생전 가족 걱정으로 아프다는 말 대신 건강하다고 호기부리던 너의 미련한 모습이 자꾸 떠오른다. 조금만 함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친구 김철중."

최근 광주시도시공사 영락공원 팀이 출간한 단행본 '하늘나라에 쓴 편지'에 나오는 사연들이다. 연일 자살뉴스가 매스컴에 오르내릴 만큼 인명경시 풍조가 확산되고 있는 요즘 세태를 질타라도 하듯 유족들은 책 속에서 가족, 친구의 죽음을 가슴 깊이 아파하고 슬퍼한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다. 지난 2005년 우리나라에서는 총 1만2천47명이 자살

로 세상을 등졌다. 하루 32명꼴이다. 연예인들의 잇단 자살 소식, '베르테르 효과'를 확인하듯 일어나는 연쇄 자살은 현대인의 우울한 심리를 더욱 무겁게 가라앉힌다.

고인들에 남긴 사연

200통 모아 책 출간

떠나보낸 슬픔 통해

삶의 소중함도 강조

하지만, 책 속의 유족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슬픔을 통해 삶의 소중함을 온몸으로 보여준다. "새처럼 멀리 날거라. 그동안 힘들었던 것, 어려웠던 것, 더러웠던 것 다 버리고...너의 삶까지 열심히 살겠다." 청춘을 접고 먼저 떠난 친구를 위해 이승의 친구는 고인의 뒤까지 열심히 살겠다며 자신에게 다짐했다.

세 살배기 아이를 두고 세상을 떠난 아내를 향해 "내 마음속에 남

아있는 내 인생의 반려자는 오직 당신뿐"이라며 20년 넘게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러온 지고 지순한 남편도 있다. "따뜻한 밤상 한번 차려 드리지" 못한 며느리는 시아버지에게 "예쁜 손주 낳아 보여주고 싶다"고 고백한다.

책은 지난 3년 동안 영락공원을 다녀간 유족들이 고인에게 쓴 편지 5천여통 가운데 200여통을 모아 엮은 것이다. 남몰래 비치된 용지에 자유롭게 사연을 적도록 했다. 책 속의 이름은 가명이다. 도시공사 측은 4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500부가량 찍어냈으며, 앞으로는 경년제로 사연을 모아 출간할 계획이다.

광주시도시공사 영락공원팀 최형우씨는 "단지 공원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끌나지 않고, 유족과 아픔을 같이 하자는 생각에 출간했다"며 "사랑하는 지인들을 저 세상으로 보낸 사람들의 가슴 절절한 사연이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아동 성폭력 없는 세상 만들자"

호남해바리기아동센터 등 11개 단체는 '제1회 아동성폭력 추방의 날'을 맞아 22일 광주시 동구 총장로 광주우체국 앞에서 선포식과 함께 캠페인을 벌였다.

/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무허가 조업 中 선박 나포

목포해양경찰은 22일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 남서쪽 112km 해상 한국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조업을 한 중국선적 122t 외팔이저인 망 '칠령어 23806호'를 나포했다.

/목포=이상희기자 lsh@kwangju.co.kr

훔친 車 통나무에 걸려 '덜미'

○...술에 취해 차를 훔친 30대가 차 바퀴가 통나무에 걸리는 바람에 경찰에 덜미.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이모 (38)씨는 21일 오후 3시30분께 광주시 북구 운정동 J농원 앞에 주차된 장모(66)씨의 매그너스 승용차에 열쇠가 끊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20여m 차를 몰고 달아났다는 것.

○...이씨는 훔친 차를 몰고 달아나다 농원 주변에 있는 통나무에 차 바퀴가 걸려 뒤쫓아온 장씨에게 불잡해 경찰에 인계됐다고.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성적 비관' 고교생 자살

광주 동구 모 아파트

(41)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최근의 삼촌은 경찰에 "공부를 가르치려 았는데, 문이 잠겨있어 할머니와 함께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조카가 목을 매 숨져있었다"고 말했다.

최근은 "부모님께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A4 용지 1장 분량의 유서를 남겼다.

경찰은 최근이 한 달 전 학교기숙사를 나왔고, 학원에 다니도 기대만큼 성적이 오르지 않아 고민했다는 유족들의 진술에 따라 성적을 비판해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50대 승려, 흉기 찔려 숨져

동생 부부와 술을 마시던 50대 승려가 흉기에 찔려 숨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1일 밤 10시께 함평군 나산면 송암리 Y암자에서 승려 안모(51)씨가 원쪽 가슴을 흉기에 찔려 숨졌다.

안씨의 동생(49)은 경찰에서 "형과 술을 마시다가 화장실에 다녀와 보니 형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신을 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숨진 안씨는 1년 전부터 동생부부와 함께 암자에서 생활해 왔으나,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평=박영진기자 pyj4079@

이날도 동생의 부인이 "몸도 안 좋은 남편에게 왜 술을 권하느냐"며 핀잔을 주자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동생부부가 안씨 스스로 흉기로 가슴을 찔렀다고 진술함에 따라 사실 여부를 한편,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부검을 의뢰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기술혁신의 선두주자
무인화된 개념의
다세대·한글부팅기기
제작·설비

Upgrade 세기보청기

3 계기스타·세기보청기